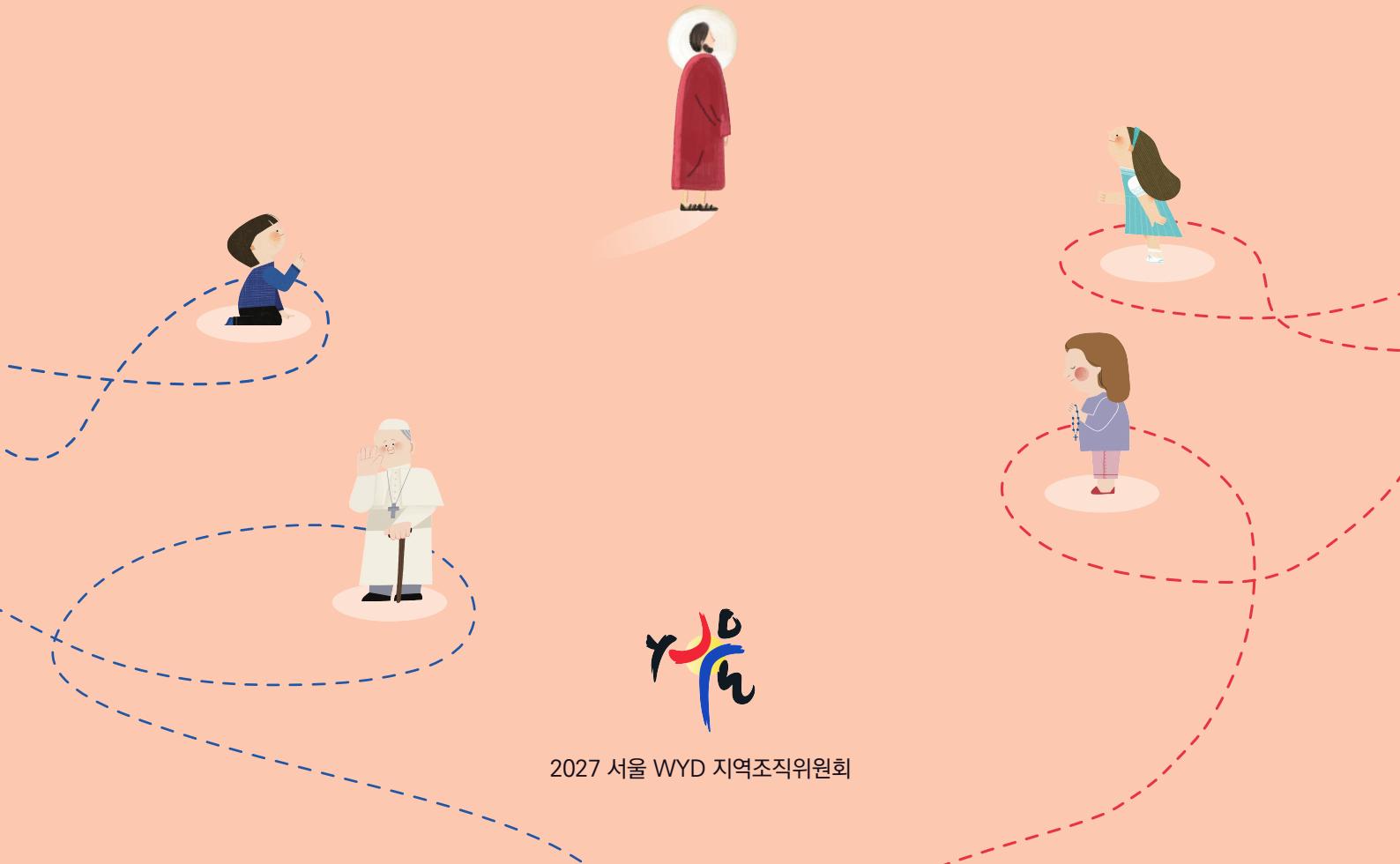


워크북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7과

함께 걷는 길

청년 사목은

시노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사목은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 각자의

성소와 역할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공동 책임의 역동성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공동 책임의 참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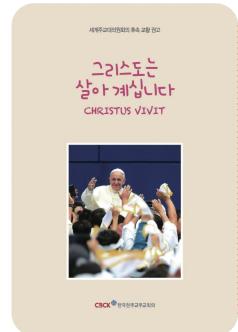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6항, 프란치스코 교황





읽어 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7장을 정성껏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생각해 보아요



성령 안에서의 대화

시작 기도

‘시노드를 위한 기도’^{16쪽}를 함께 바칩니다.

나누고 듣기

[생각해 보아요]의 질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본 생각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발표자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

3분간 침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경청합니다. 침묵과 기도 외에는 책을 들춰 보거나 기록하는 등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나눔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내용을 각자 3~5분씩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귀 기울이기 II

3분간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지 성찰합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

오늘 경청과 기도 안에서 각자 깨닫게 된 중요한 복음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이를 ‘각자’ 또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함께 해 보아요

공동체 전체가 환대를 표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진에 @wydseoul2027 을 태그하여 나의 SNS에 업로드해 봅시다.



성체 안에서의 일치

가능하다면 모임에 이어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 안에서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면, 모두 성체 앞에 앉아 잠시 침묵 중에 기도하고 함께 ‘젊은이를 위한 기도’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을 바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체 조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바치며 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우리 안에 모실 수는 없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티없으시고 거룩한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 저희의 마음에 오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저희는 당신과 결합된 지체들이오니
저희 모두 당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유대, 친교,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관계와 충실한 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모든 형제들」 87항, 프란치스코 교황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된 서울과 전세계의 청년을,
한국의 전통적인 서예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안에서
‘W’, ‘Y’, ‘D’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WYD가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를 지향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